

10월 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닷새만에 반등.. 다우 9600선 눈앞	뉴욕 증시가 5일(현지시간) 닷새만에 상승세를 나타내며 다우 지수가 9600 포인트 선에 바짝 다가섰음. 서비스업 경기가 1년만에 확장세로 돌아서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식 매수세가 이어졌음. 골드만삭스가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상향한 점도 호재로 작용함. 지난주 잇단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 나흘 연속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호재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음. 개장 전 골드만삭스의 은행업종 투자의견 상향에 힘입어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 오전 10시에 발표된 9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비제조업지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한 50.9를 기록, 주가를 추가로 끌어올렸음. ISM 비제조업지수가 경기 확장과 수축의 기준점인 50%를 웃돈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만에 처음이란 점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음.
투자의견 상향 효과로 은행주 상승	은행주는 골드만삭스의 은행업종 투자의견 상향을 호재로 반영하며 일제히 상승, 지수 반등을 견인했음. 골드만삭스가 `매수`로 투자의견을 높여잡은 웰스파고는 7.04% 상승했고, 캐피털원파이낸셜은 `확신매수` 리스트에 편입된 효과로 8% 넘게 치솟았음. 골드만삭스는 웰스파고에 대해 "와코비아를 저가에 인수한 덕분에 주당 유형자산 가치가 2007년 2분기에서 2009년 2분기 동안 70% 상승했다"고 설명했음. 캐피털원에 대해서는 "주당 유형자산 가치가 변하지 않았고 소비자 신용이 완화된고 있다"며 "3분기 매출액은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연말 사임 의사를 밝힌 케네스 루이스를 대신할 최고경영자(CEO)를 물색중이라고 밝힌 효과로 4% 가까이 올랐음. 골드만삭스는 CIT그룹이 파산보호를 신청할 경우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10억달러를 지급게 된다는 소식에 3.84% 상승했음. 푸르덴셜파이낸셜은 한국 푸르덴셜증권과 푸르덴셜자산운용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영향으로 5.69% 올랐음.
서비스업 경기 1년만에 확장	공급관리자협회(ISM)는 9월 비제조업지수가 50.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48.4%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며, 2008년 5월 이후 1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 특히 9월 지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50%를 상회했음. 지수가 경기 확장과 수축의 기준점인 50%를 웃돈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만에 처음임. ISM 비제조업지수는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10월부터 기준선인 50%를 하회했다. 11월에는 37.4%까지 떨어진 후 서서히 상승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경기회복 기대감에 70불대 회복	국제 유가가 5일(현지시간) 뉴욕 거래에서 상승하며 배럴당 70달러를 회복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46센트(0.7%) 오른 70.41달러로 마감했음.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1년만에 확장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음. 이날 발표된 9월 구매관리자협회(ISM) 비제조업지수는 50.9를 기록, 1년만에 경기 확장과 수축의 기준점은 50을 상회했음.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주말 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달러가 약세를 지속한 점도 유가 상승을 지지했음.
달러, G7 환율 언급 없자 약세	미국 달러가 5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음. 주말에 열린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이 달러 하락을 부추겼음. 유로-달러 환율은 0.0082달러(0.56%) 상승(유로 가치 상승)한 1.4656달러를 나타내고 있음. 달러-엔은 0.37엔(0.42%) 하락(달러 가치 하락)한 89.42엔을 기록하고 있음. 달러는 올 들어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국가의 재무장관들은 강달러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음. 그러나 지난 주말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환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여기에 미국의 서비스업경기가 1년만에 확장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난 점도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위축시켰음.
정무위, '국가부채 위험 수위'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부채 문제, 용산참사, 등록금 후불제 문제 등을 비롯해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 및 4대강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음.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가부채 급증에 대해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2008년도 국가직접채무는 사상 최대인 308.3조원이며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인 1,439조원"이라고 말했음.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안정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속도는 세계최고로 OECD 평균에 11.6배"라고 우려했음. 그는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옥동석 교수(인천대)가 추산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688.4~1,198조원(2007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산(비공식)한 것은 1,281.4조원(2007년)"이라며 "정부가 사용, 공표하는 국가채무 규모 및 기준이 재정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제적 비교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도 전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OECD 평균인 70%대보다 낮은 30%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과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적용 기준이 선진국의 기준과 상이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Theme Analysis



Fixed Income Report

LEADING LIGHT



| 유성엽 팀장

T 2009-7080

E syy@leading.co.kr

| 권효정

T 2009-7085

E hjkwon@leading.co.kr

| 이유진

T 2009-7078

E yjlee@leading.co.kr